

문화

Culture

광주일보

제17465호 2006년 6월 5일 월요일

박금자 발레단 3관왕

광주무용제 대상·안무상·연기상



지난달 30일 광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광주무용제에서 박금자 발레단의 'Leave Traces 흔적을 남기다'가 대상 등 3관왕을 차지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

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발데로 풀어낸 'Leave Traces...'는 심사위원들로부터 "공간 구성과 무용수들의 연기 등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았다.

안무상(김유미·사진)과 연기상(박선희) 등도 함께 수상한 'Leave Traces...'는 오는 9월 경북 포항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전국무용제에 광주 대표로 참여하게 된다.

함께 경연에 나선 뿌리무용단의 '신이여...꽃이여' (안무 한명선)와 임지현·광주현대무용단 'As if...' (안무 박종님·이경화)는 우수상을 수상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책으로, 책으로!

푹~빠져 봅시다

국내 최대 책잔치 '2006 서울국제도서전'

국내 최대 규모의 '책잔치'인 2006 서울국제도서전이 열린 지난 3일 서울 코엑스 전시장은 하루 종일 북적거렸다. 도서전을 방문한 관객들은 이날 하루만 약 4만 명여. 관객들은 입구에 놓인 거대한 책 조형물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전시장을 가득 메운 250여 개 부스에서 '책쇼핑'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 저자 사인회, 심포지엄, 작가의 방, 북아트 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의 발길을 끌었다.

20여개국 436개사 참여

'책으로, 책으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오는 7일까지 계속되며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 국내외 유명 서적 한자리에=이번 전시회에는 20여개국 436개 업체(국내업체 317

개)가 참여, 약 250여 개의 부스를 운영중이다. 김영사·민음사·창비·한길사·현암사·열린책들·문화동네 어린이 등 대형 출판사들의 자신들의 특성을 살린 독특한 디자인의 부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5인 이하로 구성된 소규모 출판사들은 연합 부스를 차리고 '좋은 책'을 관객들에게 소개했다.

외국업체의 참여가 적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프랑스와 독일이 대형 부스를 차렸으며 특히 지난해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전시했던 1천여권의 한국도서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색다른 즐거움이다.

이날 전시된 책들은 신간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0~3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또 이벤트 도서도 꼼꼼히 살피면 좋은 책을 '거저' 가져갈 수도 있으며 각 출판사가 정성들여 제작한 '도서목록'과 소식지, 선물 등도 행운을 찾을 수 있다.



오는 7일까지 서울 코엑스 전시장에서 계속되는 2006 서울국제도서전에 전시된 책을 소재로 한 조형물 앞에서 관람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 작가의 숨결을 느낄 수 있어요=가장 많은 인기를 모은 것은 유명작가들의 작업실을 재현해 놓은 '작가의 방' 코너. 작가들의 방을 사진 찍어 재현하고 안경, 몽당연필 등 작가의 소품들도 함께 전시해 두었다. '닦고, 조이고, 기름지자'는 글이 쓰여있는 김훈의 방, 섬진강이 내어다 보이는 김용택의 방, 책 속에 파묻혀 있는 고은의 방, 기타가 놓여 있는 신경숙의 방 등을 만날 수 있다.

'작가의 방' 코너 가볼 만

관객들은 작가의 방을 꼼꼼히 들여보고, 방 앞에 마련된 포스트 잇에 '작가에 보내는 편지'를 써서 붙이며 작가에게 무한한 애정을 보냈다.

▲ 특별전과 이벤트에도 참여하세요=저자

를 만나는 것은 독자들의 큰 기쁨중 하나다.

/서울=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3일에는 화가 김점선, 만화가 이우일과 이현세가 사인회를 가졌으며 진중권·박래부(6일), 공지영(7일) 등도 '저자와 사인 한장' 코너를 통해 독자들을 만날 계획이다.

또 '삼국유사 특별전'에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으며 이날 열린 니체학회의 심포지엄에는 '진지한' 관객들의 참여가 눈길을 끌었다. 그밖에 '책속의 주인공에게 편지 쓰기', '도서퀴즈대회'를 비롯, 출판사별로 진행되는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 북아트의 세계에 빠져보세요=이번 국제도서전에서는 대규모 북아트전이 함께 열려 관람객들을 즐겁게 하고 있다. 12개국에서 운영하는 52개 부스를 구경하다 보면 독창적 아이디어에 감탄이 절로 나오는 다양한 '책'을 만날 수 있으며 무료 체험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서울=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 작곡가회

오늘 정기연주회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광주 작곡가회(회장 윤대근·사진) 제9회 정기연주회가 5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윤대근·박은영·김선철·김현옥·김무섭·안재범·신도민·김승일씨 등이 클라리넷, 피아노, 플루트, 바순 등 다양한 악기를 위한 음악을 발표한다.

연주자로는 김정아·이다영·임리라·이우광·오영화·조상익·이후성·변성호씨가 참여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정태환씨 作 '경주'

치과의사들이 담은 남도의 앵글

'온나' 제2회 정기전람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 의사들의 사진 소모임이 제2회 정기전람회를 7일까지

진모임 '온나(회장 정태환)'가 제2회 정기전람회를 7일까지

롯데화랑에서 갖는다.

'온나'는 지난 2003년 치과 의사 18명을 회원으로 결성된 치과 의사들의 사진 소모임이다.

광주시 치과의사회가 주최하는 제61회 구강보건주간 행사에 맞춰 열리는 이 전시회에서 회원들은 남도의 포구, 농촌, 산하 등을 흑백과 컬러 앵글에 담은 작품 40여점을 선보인다.

회원으로는 장용성, 이기영, 위유민, 김미라, 김기현, 김진이, 우승관, 노한진, 최현덕, 하남일, 이인석, 김낙현, 이노범, 최원호, 김일곤, 박창현, 모신영씨 등이 활동하고 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신경철 作 '내마음의 풍경'



김영태 作 'Shadow Land'

휴머니즘·자연 존중 강렬한 한 컷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서

김종만씨 등 14명 '앵글의 휴머니티'

사진을 '기계적인 눈'으로 보는 고전적인 틀을 벗어나 현대 작가들의 작업을 통해 인간성 회복, 생명과 자연 존중이라는 새로운 시각을 볼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됐다.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이 국내 중견 작가 14명을 초대해 현대 사진전 '앵글의 휴머니티'를 25일까지 개최한다.

초대 작가는 구본창, 구성수, 김중만, 배병우, 임영균, 박하선, 최명준(이상 서울), 이재길(대구), 정주하(전주), 김영태, 신경철, 이정록, 강경숙(이상 광주), 이주한(순천)씨 등이다.

작가들은 주제별 연작 70여점을 통해 태초의 신비, 환경, 농촌과 출부, 향수 등 작품을 흑백과 컬러 영상으로 선보인다.

폐선 화보와 연예인 사진으로 잘 알려진 김종

만씨는 앵글을 가득채운 화사한 꽃을 통해 강렬한 원시 생명의 이미지를 선보이고 있다.

이재길씨는 'Eve Series'에서 벌거벗은 여인과 자연을 앵글에 담아 자연과 인간의 원초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으며, 박하선씨는 '인간들의 성찬'을 통해 현대인들이 감추고 있는 양면성을 짜증난 시선으로 흘겨본다.

광주대학교 영상학과 교수인 신경철씨는 한지를 바른 전통 문장살을 액자로 채택, '내 마음의 풍경'이라는 향수 같은 작품을 담았다.

최명준씨는 할미니의 쪽을 진 푸리와 농부의 뒷 모습을 담아냄으로 앵글로 보이는 이들

의 영상 보다 활기롭고 척박했을 것 같은 삶의 앞 모습을 돌아보게 만들고 있다.

한편, 이번 사진전에서는 특별코너로 5·18 26주년을 기념해 강경숙씨의 작품을 선보인다.

관람객들의 전시소감을 추첨, 작가들의 작품 4점을 선물한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 (010) 221-1140, 0210 번 011-602-2532

(광주문 신보증금, 대인동 소방서관부)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 지역 상가 중

점포가 잘 협성되어 월세

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

질 비전 있는 곳으로 1층 점

포가 4~5칸 정도에 점포

가 여전인 상가를 대표

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

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 광주에서 오랜

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

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기공인중개사

☎ (010) 324-8216, 헌 011-609-0896

(광주문화회관부)

상가부지 및 삼기부지

총평로 대지 50평 4층 건물 26억

충남로 대지 110평 4층 27억

금남로 도청로 70평 3층 21억

운봉동 중앙로 대지 30평 170만

년도 대지 25평 28평 건물 29평 25만

금호동 아파트밀집 대지 30평 당 350만

광진동 터미널 대지 30평 당 350만

신수동 대지 25평 당 350만

광진동 대지 25평 당 350만

</